

수능 1주 전 학원 수업 자제 권고...코로나 방역 '고삐'

교육부, 수능 2주 전 코로나 발생 학원 실명 공개하기로 일각선 실효성 논란...거리두기 조정 등 근본대책 마련을

전남대병원(發) 코로나19가 결국 학교에까지 전파되며 지역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 등이 다니는 학원에서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할 경우 학원 명칭을 공개하고, 1주 전부터는 학원 및 교습소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는 등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수업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능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수능 전일인 12월2일까지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할 경우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일부 학원들은 코로나19 전파의 근원지가 학원이 아닌데 수능을

앞두고 학원에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은 코로나19 전파의 근원지가 아닌데, 학원에만 '실명 공개' 한다는 것은 학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조치"라며 "산발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능 1주 전부터 학원 이용을 자제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생활리듬을 유지해야 하는데, 갑작스레 학원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스타디카페나 구조가 폐쇄적인 독서실로 수험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험생 최소 양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원격수업에 대면수업에 혼란이 너무 컸다"며 "수능을 앞두고 자꾸만 공부할 곳을 옮기는 것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시대 수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방역 당국이 현실적으로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 지역사회 감염 역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 문제는 수능 전후가 아니라 당일 수도권과 전국의 확진자 발생 상황"이라며 "현재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면 수능 당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원격 수업을 할 수 있게하는 '수능 이후 학사 운영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대학별 평가 등으로 학생들의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수능 당일인 다음달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서도 오늘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 81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도 기념식이 열린다.

광복회 광주시지부는 17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연다. 광복회 광주시지부 회원과 순국선열 유족, 임성현 광주보훈청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광주·전남 출신 독립유공자 4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고(故) 송병엽이 건국훈장 애족장, 고 김한원·이종기·양석순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애족장이 추서되는 송병엽은 1935년 10월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에서 주산농촌진흥회에 신사상 선전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됐다. 김한원과 이종기는

1934년부터 1935년 사이 장흥군 일대에서 비밀결사 장흥농민조합 활동을 하다 일경에 붙잡혀 고초를 치렀다. 양석순은 1933년 2월께 완도군에서 비밀결사 완도운동협의회에 가입, 농민반원·청년반원으로 활동하다 투옥됐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이 '항일 독립 운동의 중심, 남도'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김주원 광복회 광주시 지부장은 미리 공개한 추념문을 통해 "암흑 뿐이요, 실낱같은 희망도 없던 그 때에도 선열들은 꺾이지 아니하셨다. 때에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선열의 웅대한 용기와 기개를 전 국민이 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교육청, 지역업체 물품 구입 배 이상 늘려야"

3년간 30%대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남교육청이 지역업체의 물품 구입비율을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이 지자체와 함께 상생하는 기조를 이어 나가도록 전남도내 소상공인 물품 구입 비율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내역 중 전남업체 구매비율'에 따르면 2018년 24.0%, 2019년 31.2%, 2020년 35.0%로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전남업체 물품 구입비율은 30% 초반대에 머물러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유 의원은 "전남도내 소상공인 물품 구매비율은 해마다 감소해서 매년 지적이 반복되었지만 개선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 한 것이 문제이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기초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구매주간 설정 등의 방안으로 구매 비율을 2배 정도로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석순 전남도교육감은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개선되지 않아 이제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지역 제품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눈에 띄도록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홍진영 불똥' 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가수 홍진영의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출연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진영이 출연한 영상이 결국 비공개로 전환됐다.

홍진영은 지난 10월 초 시교육청이 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에 출연, 가수가 꿈인 모 여고 학생들을 응원했다.

하지만 논문 표절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교육청 SNS 채널에 등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연예인이 그것도 교육청에서 공식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해당 영상 비공개를 결정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육아휴직 공무원 3년·직장인 1년 '남녀고용평등법' 위헌 헌법소원

공무원에게는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는 데 비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미만의 휴직만 가능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라고 주장했다.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국가공무원법이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한 것과 달리 남녀고용평등법은 30년 넘게 '1년 이내'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달력 독서 명언 가독

16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직원들이 독서와 관련한 명언이 수록된 2021년도 달력을 제작,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지역 공공도서관에 배부하기 위해 정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한빛 3호기 중단하라" 광주·전북 환경단체 오늘 기자회견

최근 한빛원전 3호기가 919일만에 재가동(광주일보 11월 16일 7면)함에 따라 광주와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다.

16일 환경시민단체 연합인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 규탄 및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기자회견은 전북지역에서도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비상회의는 "이번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건전

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 뉴우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격납건물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인 광주, 전북(고창·정읍·부안 등) 등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중단하고, 당

장 폐로하라"고 강조했다.

비상회의의 관계자는 "공사 당시 설계, 감리 등을 맡았던 한국전력기술 즉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에게 구조건전성 평가를 맡기고, 한수원과 용역업체 관계인 프라마토피사와 콘크리트 학회를 구조건전성 검증기관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이미 평가와 검증의 오류다"면서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규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